



**KBS교향악단**  
**제810회 정기연주회**

2025.1.24. Fri 20:00 롯데콘서트홀

모두가 즐기는 공연

여러분의 배려로 시작됩니다

### 공연 관람 에티켓 5계명



휴대전화의 전원을 종료하거나  
무음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주변 관객을 위해 공연 중  
일행과의 대화를 삼가주세요.



음악이 잠시 멈추는 악장과  
악장 사이에는 박수를 자제해주세요.



연주에 방해되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세요.



사진 촬영은 공연이 끝난 후 커튼콜에만  
가능합니다.

## Program

<p>모차르트 W.A. Mozart</p>	<p>교향곡 제25번 g단조, K.183 Symphony No.25 in g minor, K.183</p> <p>I. Allegro con brio 활기차고 생기있게 II. Andante 느리게 III. Menuetto &amp; Trio 미뉴에트 &amp; 트리오 IV. Allegro 빠르게</p>	<p>⌚ 24'</p>
<p>쇼스타코비치 D. Shostakovich</p>	<p>첼로 협주곡 제1번 E<math>\flat</math> 장조, 작품 107 Cello Concerto No.1 in E<math>\flat</math> Major, Op. 107</p> <p>첼로 한재민 Cello Jaemin Han</p> <p>I. Allegretto 조금 빠르게 II. Moderato 적당히 빠르게 III. Cadenza 카덴차 (화려한 독주) IV. Allegro con moto 빠르고 생기있게</p> <p>인터미션 (Intermission)</p>	<p>⌚ 30'</p> <p>⌚ 15'</p>
<p>버르토크 B. Bartók</p>	<p>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BB 123 Concerto for Orchestra, BB 123</p> <p>I. Introduzione: Andante non troppo - Allegro vivace 도입: 지나치게 느리지 않게 - 매우 빠르고 생기 있게</p> <p>II. Giuoco delle coppie : Allegretto scherzando 한 쌍의 놀이 : 조금 빠르게 익살스럽게</p> <p>III. Elegia : Andante non troppo 비가: 지나치게 느리지 않게</p> <p>IV. Intermezzo interrotto : Allegretto 중단된 간주곡 : 조금 빠르게</p> <p>V. Pesante - Presto 무겁게 - 매우 빠르게</p>	<p>⌚ 36'</p>

※ 상기 프로그램 및 출연진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휘 Conductor

### 엘리아후 인발 Eliahu Inbal



“엘리아후 인발은 프랑코 페라라, 세르주 첼리비다케와 같은 롤모델과 스승의 영향을 분명하게 받았다. 인발은 고요함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힘, 그리고 견잡을 수 없는 열정과 극적 효과를 만들어 내는 감각을 가지고 있다.”

-독일 일간지 '디벨트'

엘리아후 인발은 26세의 나이로 귀도 칸텔리 지휘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한 이후 전 세계의 정상급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며 커리어 내내 국제적인 명성을 쌓았다. 인발은 지금까지 프랑크푸르트 방송 교향악단과 베니스의 라 페니체 극장 오케스트라, RAI 국립 교향악단,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체코 필하모닉, 도쿄메트로폴리탄 교향악단의 수석 지휘자로 임명된 바 있으며, 특히 도쿄메트로폴리탄 교향악단에서는 2014년 명예지휘자로 위촉되기도 했다. 인발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타이베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수석 지휘자를 지냈으며, 2023년에는 명예지휘자로 위촉되었다.

엘리아후 인발은 1974년부터 1990년까지 프랑크푸르트 방송 교향악단의 음악 감독을 맡는 동안(현재도 명예지휘자로 활동 중이다) 뛰어난 음악성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취리히 근처에 거주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이스라엘 지휘자 인발은 말러와 브루크너에 대한 자신만의 해석을 들려준 녹음으로 다수의 수상 경력에 빛나는 녹음(독일 레코드상, 프랑스 레코드 그랑프리)을 통해 국제적인 찬사를 받았으며, 브루크너 교향곡의 오리지널 버전을 최초로 녹음했다. 인발은 특히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에 대한 해석으로 상당한 인정을 받았다.

엘리아후 인발은 최근 일본과 스페인에 여러 차례 투어에 올랐고, 객원 지휘 활동을 통해 몬테카를로, 상트페테르부르크, 밀라노 라 스칼라, 마지오 무지칼레 피오렌티노 극장, 린츠 브루크너 페스티벌(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지휘), 그리고 남서독일 방송 교향악단 등의 오케스트라와 여러 차례 연주했다. 2024/25 시즌에는 타이베이 교향악단, KBS 교향악단, 도쿄 메트로폴리탄 교향악단, 쾰른 귀르체니히 오케스트라로부터 재초청을 받아 연주하게 된다.

인발은 파리, 글린드본, 뮌헨, 슈투트가르트, 취리히, 마드리드 등 유명 오페라하우스에서 오페라를 지휘했다. 2013년 바그너 탄생 200주년을 맞아 라코루냐 오페라 페스티벌에서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블람세 오페라에서 <파르지팔>(2014년 국제 오페라상 수상)을 지휘해 호평을 받았다. 인발은 또한 RAI 국립 교향악단과 함께한 바그너의 <반지> 사이클의 탁월한 해석으로 이탈리아 국립 음악비평가상인 “아비아티와 비오티”상을 수상했다.

엘리아후 인발은 베를리오즈에서부터 브람스, 브루크너, 말러, 라벨, 슈만, 쇼스타코비치, 스크랴빈, 스트라빈스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에 이르는 작곡가의 교향악 전곡을 포함해 방대한 디스코그래피를 보유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 방송 교향악단,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프랑스 국립 관현악단, 빈 교향악단, 런던 필하모닉, 스위스 로망드 관현악단, 체코 필하모닉과 함께 이 작품들을 녹음했다. 로열 콘서트헤바우 오케스트라의 말러 사이클의 일부로 연주한 말러 교향곡 제10번(데릭 쿡 버전)의 영상이 DVD로 출시되기도 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엘리아후 인발은 예루살렘 음악원에서 바이올린과 작곡을 공부했고, 레너드 번스타인의 추천으로 파리 국립 고등 음악원에서 학업을 마쳤다. 그곳에서 루이 푸레스티에와 올리비에 메시앙, 나디아 불랑제를 사사했다. 그는 또한 네덜란드 힐베르섬에서 프랑코 페라라로부터, 이탈리아 시에나에서 세르주 첼리비다케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1990년 인발은 프랑스 정부로부터 ‘문화행정가’로 임명되었다. 2001년 2월에는 빈 시에서 수여하는 황금훈장을 받았다. 2006년에는 프랑크푸르트 시로부터 괴테 명예 훈장을, 독일 공로 훈장을 받았다.

## 첼로 Cello

### 한재민 Jaemin Han



“남다른 재능을 지녔다. 음악에 진심이고, 단련된 자아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있다. 자신만의 해석으로 음악에 생명을 불어 넣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연주에는 즐거움과 즉흥성이 묻어 있다.”

- 정명화 첼리스트

2006년생 첼리스트 한재민은 2021년 루마니아에서 열린 제오르제 에네스쿠 국제 콩쿠르에서 열다섯의 나이로 최연소 우승을 거머쥐었다. 같은 해, 두 달 뒤에는 제네바 국제 콩쿠르 3위 및 특별상을 받아 50년 만의 첼로 부문 한국인 입상자라는 영예를 얻었다. 또한, 2022년 윤이상 국제 음악 콩쿠르 결선에서 윤이상의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1976)’을 연주해 우승을 차지했는데, 결선에서 이 협주곡을 연주해 우승한 건 콩쿠르 20년 역사상 첫 기록이었다. 그의 콩쿠르 석권은 일찌감치 어린 시절부터 시작됐다. 2015년 오사카 국제 음악 콩쿠르, 2017년 헝가리 다비드 포퍼 국제 첼로 콩쿠르, 2019년 독일 뉘른베르크 국제 첼로 콩쿠르에서 1위를 휩쓸었다. 이 화려한 이력들은 그가 5세에 첼로를 시작한 지 10여년 만에 이룬 성과다.

한재민은 이미 룩셈부르크 필하모닉, 노르웨이 스타방에르 심포니, 네덜란드 로테르담 필하모닉, 라트비아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여러 저명한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2023년 여름에는 에든버러 국제 페스티벌에서 피에타리 잉키넨 지휘의 KBS교향악단과 데뷔하여 현지 언론의 극찬을 받았고, 같은 시즌 한국에서는 정명훈 지휘의 KBS교향악단, 압 판 츠베덴 지휘의 서울시립교향악단 등과 협연했다. 한재민은 2024년 롯데콘서트홀의 인 하우스 아티스트로 선정되어 무반주 리사이틀, 피아노 트리오 등 다양한 편성의 연주를 선보인 외에 12월에는 ‘BBC 프롬스 인 코리아’의 일환으로 신동훈의 첼로 협주곡을 아시아 최초로 연주하며, 이에 앞서 글래스고에서 BBC 스코틀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같은 곡으로 데뷔한다. 2024-25 시즌에는 영국 버밍엄 시티 심포니 오케스트라, 로열 노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도 협연하며, 암스테르담 콘서트헤바우에서는 2024년 가을 한국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2025년 봄에는 북서독일 교향악단과 함께 연주한다. 2025년에는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협연, 라 호야에서 독주회 등 미국 서부에서 중요한 데뷔를 앞두고 있으며, 피아니스트 알렉산더 말로페예프와 함께 듀오 프로그램으로 내한하고, 타이베이 심포니 오케스트라와도 데뷔한다.

한재민은 2022년 도이치 그라모폰의 ‘라이징 스타’에 첼리스트로서는 처음으로 선정되어, 스테이지+플랫폼에서의 리사이틀 외에 다수의 디지털 싱글 녹음을 선보였다. 또한 2024년 가을에는 다비드 라일란트 지휘의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녹음한 윤이상의 첼로 협주곡 음반이 데카 레코드에서 발매되어 호평을 받고 있다. 현재 독일 크론베르크 아카데미에서 볼프강 에마누엘 슈미트 교수의 가르침을 받고 있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정명화, 이강호, 츠요시 츠츠미 교수를 사사한 외에 다니엘 뮐러 쇼트, 미클로시 페레니, 율리안 슈테켈, 지안 왕, 루이스 클라렛, 에드워드 아론, 로런스 레서, 폴 캐츠 등 세계적인 명성의 첼리스트 마스터 클래스에 참여하며 음악 세계를 넓히고 있다. 한재민은 삼성문화재단으로부터 조반니 그란치노 첼로를 대여받아 연주한다.

<b>모차르트</b> <b>W.A. Mozart</b>	<b>교향곡 제25번 g단조, K.183</b> <b>Symphony No.25 in g minor, K.183</b>
<b>작곡연도</b>	1773년
<b>초연</b>	정확한 기록 없음
<b>편성</b>	오보에 2, 바순 2, 호른 4, 현 5부
<b>연주 시간</b>	약 24분

모차르트는 24년에 걸쳐 60곡이 넘는 교향곡을 작곡했다. 수적으로만 보아도 36세로 끝난 짧은 생애에 압도적 지분을 차지하는 장르임을 부인할 수 없다. 첫 교향곡을 아홉 살에 작곡하고 시기상 ‘중기’에 해당하는 25번 교향곡조차 발표 당시 불과 열일곱 살에 불과했다는 점은 이 작곡가에게 붙었던 ‘신동’이라는 꼬리표가 허풍이 아님을 증명한다. 심지어 이 어린 시기에 스타일의 변화마저 엿본다. 우아함과 재치, 기교를 앞세웠던 이전 교향곡들이 이탈리아 양식의 모방이었다면, 이 교향곡을 작곡한 1773년부터는 전형적인 오스트리아 양식, 즉 대담한 콘트라스트와 견고한 소나타 형식, 그리고 한층 더 길어진 러닝 타임을 갖추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25번 교향곡은 유독 개성이 두드러진다. 가장 주목할 점은 조성이다. 모차르트의 작품은 장르를 막론하고 단조 조성이 극히 드물다. 그중에서도 교향곡은 40번과 25번 단 두 곡 뿐으로, 하필이면 둘 다 g단조로 작곡되었다. 이 조성으로 모차르트는 우울함을 넘어 분노와 비장함마저 드러낸다. 그는 무엇에 그토록 분노했을까? 바로 직전에 깨진 연애, 빈에서의 취업 실패같은 사적인 사건에서부터 신분 차별이라는 범사회적 이슈까지, 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하다. 어쨌든 중요한 점은 모차르트가 음악에 사적인 감정을 드러냈다는 사실이다. 이는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기 위해 감정을 억누르고 형식미에 치중했던 고전적 관념을 넘어서 먼 훗날 낭만주의의 도래를 예견하는 획기적인 시도였다. 당시 보통 2대만 사용하던 호른을 이례적으로 4대로 확장하며 음색에 무게를 더하고 다채로운 질감을 시도한 점 또한 이 교향곡의 매력이다.

**제1악장**은 거친 당김음과 더불어 엄청난 보폭(감7화음)으로 폭폭 떨어지는 음정으로 시작된다. 현악기들이 일사불란하게 주도하는 하강은 바닥을 찍은 뒤 어떻게든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는 듯 급하게 도약한다. 폭풍우를 연상시키는 이 제1주제는 영화 <아마데우스>(1984)에도 삽입되어 ‘모차르트’하면 전형적으로 떠오르는 트레이드마크가 되었다. 반면 이어지는 B 장조의 제2주제는 앞꾸밈음을 가진 장난스럽고 유머러스한 선율로 대비를 이룬다. 제1악장 두 번째 주제의 B ♭ 장조를 이어받은 **제2악장**은 악음기를 낀 바이올린과 바순의 우아한 대화로 진행된다. 다시 g단조로 돌아온 **제3악장**은 다이내믹이 뚜렷한 단호한 느낌의 미뉴에트다. 음량뿐 아니라 소리의 텍스처도 독특한 대비를 이룬다. 관악기는 포르테(**f**) 부분만 참여하여 소리의 세기를 더하며, 가운데(트리오) 부분에서는 아예 현악기가 다 빠지고 관악기들끼리 G장조의 밝고 부드러운 대화를 나눈다. **제4악장**에서는 현악기들이 바로 앞 미뉴에트 악장과 연관된 주제를 제시한다. 오보에가 이 주제를 반복하는 동안 현악기들은 제1악장에 사용한 당김음 동기를 한층 더 예리한 리듬으로 연주한다. 이 당김음 동기를 비롯해 반음계 진행, 트레몰로 등 제1악장의 모든 음악적 재료들을 빠짐없이 사용한 것을 확인한 뒤, 음악은 깔끔하게 마무리된다.

<b>쇼스타코비치</b> <b>D.Shostakovich</b>	<b>첼로 협주곡 제1번 E ♭ 장조, 작품 107</b> <b>Cello Concerto No.1 in E ♭ Major, Op. 107</b>
<b>작곡연도</b>	1959년
<b>초연</b>	1959년 10월 4일, 러시아 레닌그라드 (현 상트페테르부르크)
<b>편성</b>	플루트 2(제2 플루티스트는 피콜로를 겸함),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순 2 (제2 바순니스트는 콘트라바순을 겸함), 호른 1, 팀파니, 첼레스타, 현 5부
<b>연주 시간</b>	약 30분

전통적으로 협주곡은 특정 연주자에 대한 영감을 기반으로 작곡되었다. 쇼스타코비치도 예외는 아니었다. 두 곡의 피아노 협주곡은 각각 본인과 자신의 아들 막심을 위해, 두 곡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다비드 오이스트라흐를 위해, 두 곡의 첼로 협주곡은 므스티슬라브 로스트로포비치를 위해 작곡했다. 로스트로포비치와 쇼스타코비치의 인연은 194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해 모스크바 음악원에 입학한 로스트로포비치는 쇼스타코비치의 관현악 수업을 들으며 절친한 사제관계를 다졌다. 9년 뒤인 1952년 쇼스타코비치는 자신의 걸출한 제자가 프로코피예프의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소피니아 콘체르탄테를 초연하는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아 첼로 협주곡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1959년 완성된 쇼스타코비치의 첫 번째 첼로 협주곡은 프로코피예프가 그러했듯 첼로와 오케스트라가 동등한 지위에서 유기적인 대화를 이어가는데 초점을 맞췄다. 독주 악기와 악단의 사운드 밸런스를 위해 오케스트라는 2관 편성에 금관은 호른 한 대로 제한했다. 이는 독주 악기를 중심으로 오케스트라가 화려한 편성으로 들러리를 서는 일반적인 협주곡과 사뭇 다른 모양새다.

**제1악장**은 첼로 독주와 목관이 함께 연주하는 제1주제로 시작된다. 경쾌하고 해학적인 첼로의 첫 네 음(G-F ♭ -C ♭ -B ♭)은 쇼스타코비치의 영화음악 ‘젊은 친위대’ 중 ‘영웅의 처형’ 장면에서 사용된 ‘죽음’의 모티브를 반어적으로 재인용한 것으로, 전 악장에 걸쳐 계속해서 등장한다. 이 반복되는 모티브를 오케스트라가 이어받을 무렵 분위기는 최고로 고조된다. 팀파니 소리를 신호로 오케스트라는 두 마디로 이루어진 반주를 반복한다. 이때 목관악기들은 작곡가 이름(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머리글자를 딴 DSCH의 변형(C-H-Es(E ♭)-D)음을 3옥타브 위에서 집요하게 반복한다. 이를 배경 삼아 정열적인 제2주제가 역동적으로 펼쳐지고 나면 팀파니가 악장의 종지부를 찍는다.

**제2악장**은 처연한 분위기로 시작되며 1악장과 대조를 이룬다. 호른의 인상적인 팡파르에 이어 첼로가 가슴 저미는 주제를 시작하고, 비올라가 가세한다. 클라리넷이 이 주제를 연주하면 첼로가 다른 선율을 소개하고, 주제가 반복되며 분위기가 점차 고조된다. 클라이맥스에서 팀파니를 신호로 오케스트라 총주가 시작되고 첼로와 첼레스타가 1악장 주제를 서로 주고받는다. 그 위로 제1 바이올린이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다가 서서히 소리가 사라져간다.

2악장의 꼬리를 물고 씬 없이 이어지는 **제3악장**은 첼로의 독무대이다. 1악장의 주제를 격렬하고 까다롭게 변형시킨 독주 카덴차로 진행된다. 카덴차가 수그러들 무렵 음악은 마찬가지로 쉬지 않고 바로 **제4악장**으로 이어진다. 첼로는 피날레 악장을 실로 격렬하고도 냉소적으로 이끌어간다. 호른만이 유일하게 자제력을 잃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첼로를 비롯한 모든 악기들이 제1악장 주제를 모티브 삼아 현란하게 질주한다. 마침내 가장 높은 음역에 올라선 첼로와 오케스트라가 1악장 주제를 강렬하게 되새기고 있으면 팀파니가 갑자기 나타나 경주가 끝났다고 알린다. 음악은 이렇게 다소 뜬금없는 분위기에 예고 없이 마무리된다.

버르토크  
B.Bartók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BB 123  
Concerto for Orchestra, BB 123

**작곡연도** 1943년  
**초연** 1944년 12월 1일, 미국 보스턴  
**편성** 플루트 3(제3 플루티스트는 피콜로를 겸함), 오보에 3(제3 오보이스트는 잉글리시 혼을 겸함), 클라리넷 3(제3 클라리네티스트는 베이스 클라리넷을 겸함), 바순 3(제3 바순니스트는 콘트라바순을 겸함), 호른 4, 트럼펫 3, 트롬본 2, 베이스 트롬본, 튜바, 팀파니, 타악기(베이스드럼, 심벌즈, 서스펜디드 심벌, 스네어 드럼, 트라이앵글, 탐탐), 하프 2, 현 5부  
**연주 시간** 약 36분

1940년 헝가리 작곡가 버르토크는 세계 대전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미국인에게 생소했고, 버르토크 또한 그곳 문화에 적응하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앓고 있던 백혈병도 악화됐다. 입대한 아들이 보내오는 월급도 거절할 만큼 남에게 신세지는 것을 싫어한 그의 성격 탓에 고립은 더욱 깊어졌다. 이런 그에게 구세주처럼 나타난 인물은 당시 보스턴 심포니 상임지휘자였던 세르게이 쿠세비츠키였다. 그는 망명한 버르토크의 동향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병상의 버르토크를 찾아와 얼마 전 죽은 자신의 아내를 추모하는 작품을 위촉했다. 이 부탁을 받은 버르토크가 병마에도 불구하고 단 7주 만에 완성한 작품이 바로 이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이다.

버르토크는 작품마다 기존의 형식에 만족하지 않고 늘 새로운 질서를 추구했으며, 이 작품 또한 예외는 아니다. 일단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이란 모순적인 제목에서부터 창의적인 의도가 엿보인다. 협주곡이란 주인공인 독주 악기를 오케스트라가 지원하는 장르로만 인식되었는데, 이 협주곡은 거꾸로 오케스트라를 주인공으로 내세운다. 버르토크는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악기들을 독주 악기로 활용하며 기교를 뽐내는 한편 작품 전체적으로는 균형과 통일성을 추구하고 있다. 제3악장을 중심으로 2·4악장(스케르초)과 1·5악장이 서로 음악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전체적으로 무지개 모양을 그리고 있다. 조성 또한 전통적인 조성을 벗어나 인위적인 음계를 사용하여 참신한 음향을 구현한다.

**제1악장**은 어둡고 무거운 서주로 시작된다. 트럼펫 선율이 서서히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가운데 불규칙한 리듬을 가진 민요풍의 제1주제가 솟구치듯 등장한다. 이는 다음에 오보에가 연주하는 서정적인 제2주제와 대조를 이룬다. 금관악기들이 주도하는 악장의 후반부는 신랄하면서도 강렬한 음향으로 치열하게 전개된다.

**제2악장**은 '짜들의 놀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작은 북이 처음 신호를 보내면 바순, 오보에, 클라리넷, 플루트, 트럼펫 등 관악기들이 두 대씩 짝을 짓고 번갈아 등장해 각자의 기량과 개성을 발휘한다. '협주곡'이라는 제목이 가장 어울리는 악장이기도 하다.

**제3악장**은 '비가(悲歌)'라는 제목의 느린 악장으로, 작곡가 본인은 '우울한 장송곡'이라 이름붙였다. 이 작품의 위촉 동기가 망자에 대한 추모인 만큼 내용상으로도 위치상으로도 가장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 악장에서 버르토크는 1악장 음악 재료들을 응용한 세 가지 주제 선율을 펼친다.

**제4악장**은 또 하나의 스케르초 악장으로 서정적인 칸타빌레와 경쾌한 클라리넷 선율이 주를 이룬다. 사이사이 익살스러운 제스처가 일품인 악장이다. 마지막 **제5악장**은 4대의 호른이 부는 중후한 팡파르로 시작한다. 그 다음 현악기의 무궁동 32분음표, 16분음표와 같은 짧은 음표를 쉬지 않고 계속 연주하는 주법 패시지가 펼쳐지며 여기에 다른 악기들도 가세하면서 분위기가 열광적으로 고조된다. 잠깐의 복잡한 푸가를 거쳐 다시 무궁동이 시작되고, 음악은 작곡가의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변화무쌍하게 휘몰아치며 절정을 향해 돌진한다.

글 / 노승림(음악 칼럼니스트)

오늘 공연에 대한 연주자의 생각이 궁금하세요?  
KBS교향악단 유튜브 채널에서  
직접 전하는 쉽고 재미있는 해설 영상을 만나보세요!



**KBS**  
KBS 교향악단  
KBS Symphony Orchestra  
제811회 정기연주회

**지휘 정명훈**  
Conductor Myung-Whun Chung

**메조-소프라노 이단비**  
Mezzo-Soprano Danbi Lee

**소프라노 황수미**  
Soprano Sumi Hwang

**서울모테트합창단**  
Seoul Motet Choir

**고양시립합창단**  
Goyang Civic Choir

**안양시립합창단**  
Anyang Civic Chorale

**2025. 2.21. Fri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주관 KBS 교향악단 | R 120,000\* | S 100,000\* | A 70,000\* | B 30,000\* | C 10,000\* | 예매 interpark 티켓 1544-1555 예술의전당 1668-1352

Mañter / Symphony No.2 in c minor 'Resurr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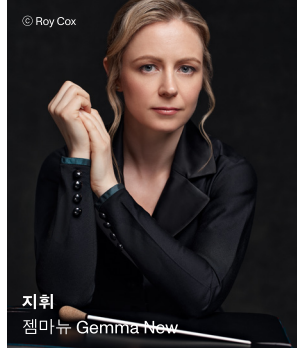
# 2025 Season Highlights



지휘  
안드레스 오로스코-에스트라다  
Andrés Orozco-Estrada

## → 클래식 트렌드의 중심

2025년 KBS교향악단의 정기연주회는 우리 시대 - '지금', '현재'의 클래식 씬(Scene)을 선도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의 무대로 가득하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미 수 많은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클래식계의 아이돌' - 선우예권, 한재민, 드미트리 시쉬킨 등이 협연자로 관객을 만난다. 특히 뉴질랜드 태생의 젤마 뉴(9월)는 세계에서 가장 스케줄이 바쁜 여성 지휘자로 손꼽히며, 빈 심포니 내한 공연에서 지휘봉을 잡았던 젊은 거장 안드레스 오로스코-에스트라다(5월)는 올해 한국 오케스트라 데뷔 무대를 KBS교향악단과 장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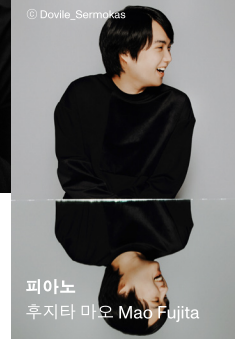
지휘  
젤마뉴 Gemma N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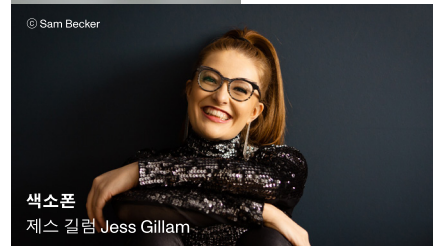
바이올린  
랜들 구스비 Randal Goosby



피아노  
드미트리 시쉬킨  
Dmitry Shishkin



피아노  
후지타 마오 Mao Fujita



색소폰  
제스 길럼 Jess Gillam

## → 90년대생이 온다

KBS교향악단의 2025년 하반기 공연의 협연자는 모두 90년대생이다. 드미트리 시쉬킨(1992년생), 후지타 마오(1998년생), 제스 길럼(1998년생), 랜들 구스비(1996년생). 이들은 각기 다른 배경과 독창성을 지닌 젊은 연주자들로, 90년대생 협연자들이 만들어갈 열정적이고 신선한 해석은 클래식 음악의 흐름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KBS교향악단은 이처럼 다채로운 음악적 만남을 통해 청중들에게 깊은 감동과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 → 시크릿, Secret

제820회 정기연주회(11월)는 2025년 국제 쇼팽 피아노 콩쿠르 우승자와의 협연 무대를 예고하며 벌써부터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10월 결선 무대까지 그 협연자가 누구일지 알 수 없는 이 미스터리는, 관객들에게 더 큰 설렘을 안겨준다. 최종 우승자와 함께하는 쇼팽 피아노 협주곡은 마치 감춰졌던 비밀이 서서히 풀어지는 순간처럼, 그 자체로 숨겨진 감동과 영감을 선사할 것이다.



지휘  
엘리아후 인발 Eliahu Inbal



첼로  
한재민 Jaemin Han

## → 흑백요리사

KBS교향악단 제810회 정기연주회(1월)는 마치 두 세대의 세프가 만난 특별한 요리처럼, 엘리아후 인발과 한재민이 음악이라는 재료를 다루며 세대 간의 맛을 조화롭게 이룬다. 1936년생인 인발은 풍부한 경험과 깊은 맛을 내는 클래식의 거장이며, 2006년생인 한재민은 신선한 재료로 새로운 풍미를 더하는 젊은 아티스트이다. 그들의 협연은 흑백요리사처럼 전통과 혁신을 섬세하게 믹스하여, 음악을 통해 시간과 세대가 어우러지는 진미를 선사할 것이다.

## → 부활

2025년 KBS교향악단은 우리 시대의 거장 정명훈과 함께 네 차례의 정기연주회와 세 차례의 기획연주회를 준비하고 있다. 말리의 <교향곡 제2번 '부활'>(2월)을 시작으로 말리의 <교향곡 제1번 '거인'>(3월), 브람스 <교향곡 제1번~제4번>(3월, 6월), 베토벤의 <교향곡 제9번 '합창'>(12월), 브루크너 <교향곡 제6번>(6월)과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8월) 등 그간 정명훈 지휘자가 국내 교향악단과는 좀처럼 연주하지 않았던 대곡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관객들의 기대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지휘  
정명훈 Myung-Whun Chung

# 대한민국 교향악단의 자존심 KBS교향악단!

##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1956년 창단되어 수준 높은 연주를 통해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 발전을 선도해 왔다. 임원식 초대 상임지휘자를 시작으로 홍연택, 원경수, 오토마 마가, 정명훈, 드미트리 키타옌코, 요엘 레비, 피에타리 잉키넨 음악감독 등 세계 최정상 지휘자들이 KBS교향악단을 이끌었다. 2012년 전문예술경영체제를 갖춘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며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 언제 어디서나 감동을 전하는 국민의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교향악부터 실내악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통해 관객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수준 높은 연주를 들려주는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시즌 및 주제별로 관객과 소통하는 초청, 기획연주회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없는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까지 매년 100회 이상의 공연으로 10만 명이 넘는 관객에게 고품격 음악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공연 현장에 함께할 수 없는 관객을 위해 KBS교향악단의 연주는 KBS TV와 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중계되며, 공연 외에도 방송프로그램 및 콩쿠르 사업, 지역과 연계한 음악제, 기업 후원의 공익연주회 등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국민의 교향악단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다.

## K-클래식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는 콘텐츠 허브 교향악단

2018년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 레이블인 '도이치 그라모폰(DG)'에서 실황음반을 발매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이어 체코슬로바키아 건국 100주년 기념연주회, 2019년 한국 폴란드 수교 30주년 기념 순회공연과 오스트리아 빈 무지크 페어아인 황금홀 특별연주회를 연이어 개최하였다. 2023년에는 영국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공식 연주 평가에서 5점 만점을 기록하였다. 2024년 8월에는 폴란드 쇼팽 협회와 체코 브르노 슈필베르크 페스티벌에 아시아 오케스트라 최초로 초청받아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다.

KBS교향악단은 디지털 콘텐츠를 선도하며, 코로나 시대에 무관중 공연으로 2만 3천여 명의 실시간 관람 기록을 세우고 '디지털 K-Hall' 아카이브를 오픈하여 고품격 음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내 교향악단 최초로 유튜브 구독자 수 10만 명을 돌파하여 실버 버튼을 받은 후, 현재는 구독자 수가 17만 명을 넘어 아시아 1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KBS교향악단은 언제나 차별화된 연주와 창의적인 기획을 통해 국민과 공감하는 대한민국 국가 대표 클래식 문화브랜드로 함께 할 것이다.

사장	한창록
제1바이올린	최병호 부악장 반선경 수석 유신혜 부수석 김나현 부수석 김혜은 황미령 김희진 권혁진 최혜진 강내운 오지은 유지인 이소윤 설현선 김지현 김선우 선승미
제2바이올린	권민지 수석 임정연 부수석 안지현 부수석 유주현 김진아 이윤경 박소현 박정원 김은근 이조해 박서현 최여은 김지민 이유진
비올라	진덕수 수석 한넬리 부수석 박세란 최진미 김지우 유민형 임나유 석지영 박새롬 변은혜 유우정
첼로	김우진 수석 윤여훈 부수석 양윤정 김현정 김소영 정세은 장현경 김신애 유소향
더블베이스	이창형 수석 김남균 부수석 안수현 부수석 양현주 유주연 장한별 강창대 곽민재
플루트	김태경 부수석 이철호 전서영
오보에	이지민 수석 김종아 부수석 조성호
클라리넷	이승훈 부수석 박한 양수현
바순	박준태 수석 고주환 부수석 김소연 정순민
호른	정희찬 조세영 조현우 김현준
트럼펫	남관모 수석 김주원 부수석 정용균 김승헌
트롬본	윤지연
베이스트롬본	정다운
튜바	Norito Usui
팀파니	이원석 수석
타악기	Jason Yoder 수석 장세나 Matthew Ernster
하프	김서원

## 객원수석

악장	문바래니 WDR 필름 방송교향악단 제2바이올린 수석
플루트	안명주 수석
클라리넷	채재일 수석
호른	Sam Jacobs 수석
트롬본	김성수 수석

## 한국예술종합학교 인턴십 2기

제1바이올린	김수연
제2바이올린	박예진 이예령
비올라	이태형
첼로	김유림 심수연
바순	최찬열
호른	민예원
트럼펫	이영훈

## 사무국

사무국장	신승원 대외협력실 실장 김원재
공연기획팀	팀장 손유리 차장 김지민 과장 성채은 대리 전현정 최난희 사원 허효정 (공연지원파트) (악기담당) 단원 유재식 정오준 (악보담당) 과장 장동인
공연사업팀	팀장 강길호 차장 이한신 과장 이미라 PD 서영재 사원 차하영 장태형
경영관리팀	팀장 손대승 차장 유연철 유정의 박연선 사원 윤자윤

# KBS교향악단 후원회 소개

KBS교향악단 후원회는 소중한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KBS교향악단이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세상과 더욱 폭넓게 나누고, 세계적인 교향악단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후원회원에게는 풍성한 혜택과 함께 KBS교향악단 가족의 일원으로서 다채로운 행사 참여 기회와 교류의 장이 주어집니다. 1956년 창단한 역사와 전통의 KBS교향악단 새로운 후원회에 적극적인 동참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등급	정가	기간	등급별 혜택
Symphony	1억 원 이상	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연주회 동반 [2인 항공 포함 교통/숙박 제공]</li> <li>스페셜 클래스 [후원인 관련 기관/단체 위한]</li> </ul>
Concerto	3천만 원 이상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VVIP 만찬</li> <li>지역연주회 동반 [2인 교통/숙박 제공(연 1회)]</li> </ul>
Cantata	1천만 원 이상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VVIP 만찬</li> <li>KBS교향악단 명예의 전당 명단 게재</li> </ul>
Nocturne	5백만 원 이상	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연장 VIP라운지 이용 [환담 및 다과]</li> <li>후원회의 밤 행사 초청</li> <li>정기연주회 백스테이지 투어</li> </ul>
Prelude	1백만 원 이상	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KBS교향악단 발간물 우편 발송</li> <li>연주회 Lecture 초청</li> <li>특별연주회 초청 [후원인을 위한 특별연주회]</li> <li>교향악단 투어 [KBS연습실 리허설 참관(연 1회)]</li> </ul>
Etude	1십만 원 이상	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통 혜택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및 티켓 20% 할인]</li> </ul>

## 후원회 공통혜택

- 정기연주회 초대(Prelude 등급 이상)
- 기부금 영수증 발행 (소득공제 가능)
- 정기기획연주회 티켓 20% 할인(공연당 1인 2매)
- KBS교향악단 뉴스레터 온라인 서비스, 웹진 발송
- KBS교향악단 기념품 제공
- 리허설 참관 초청 (Etude등급은 연 1회, 상위 등급은 추가 기회 제공)
-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북 후원명단 게재 (Etude 등급은 홈페이지 게재)

\*후원회원 간 공식 행사 외 네트워크 유지되도록 행정 지원

\*기존 후원회원은 해당 종료기간까지 기존 혜택 유지

## 프렌즈클럽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회원) 메일링 서비스 및 웹진 발송

KBS교향악단('kbssoforever') 또는 Facebook.com/kbssymphony 가입자 대상

## 후원회 가입 문의

072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 Tel 02-6099-7407, 010-4932-3061

andy@kbssymphony.org



가입문의

## KBS교향악단 이사회

이사장	이건수 (주)동아일렉콤 회장	이사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감사	남유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상임이사	한창록 (재)KBS교향악단 사장		김덕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주) 회장
			이우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은 KBS 시청자센터장
			한경천 KBS 예능센터장
			김병진 KBS 라디오센터장

## 후원회 명단

Concerto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Nocturne	교보문고
	김덕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주) 회장		국은주
	김인호 전)한국무역협회 회장		김동진 금양식품(주) 대표
	김정수 (주)제이에스앤에프 회장		김영기 변호사
	이영애 배우		이종원 H&O 코리아 대표
	백정호 동성그룹 회장		이황일 (주)하어스엠 대표
	최원석 비씨카드(주) 대표이사		정옥선 (주)세이프케미컬 대표
	허남선 (주)우성플라테크 명예회장		NH투자증권
	NH-Amundi자산운용		
Cantata	고중제 (주)이소프트팅 대표이사	김도영 변호사	
	권오현 전)삼성전자 회장 / 현 삼성전자 상근고문	김승중 전)KBS감사	
	구자관 (주)삼구INC 회장	김영선 KBS PD	
	김명환 (주)덕신하우징 회장	김영철 배우	
	김호수 (주)효석 대표	김용	
	문양호 (주)동영관광 대표	김은영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대외협력 이사	
	민성우 에스엠글로벌코리아(주) 대표이사	김진오 변호사	
	박은관 (주)시몬느 회장	김한나 변호사	
	박정옥 전)KBS교향악단 사장	김희연 전) KBS교향악단 첼로 단원	
	서봉준 (주)동림유화 대표	노기용	
설명수 석교실업 회장	박상현 (주)발렉스 대표이사		
신한투자증권	박옥균		
안국약품(주)	배홍기 PKF 서현회계법인 대표이사		
오영환 (주)브라잇썸 대표이사	오지연 변호사		
유승원 동우교역 대표	유수엽		
윤만호 EY 한영회계법인 경영자문위원회 회장	유순신 (주)유애프트너즈 대표		
이윤세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윤종호 쉐리코리아 컴퍼니(유) 대표이사		
이재영 L&T렉서스 회장	윤혜원 전)KBS교향악단 오보에 단원		
이충희 (주)듀오 회장	이지민 영인과학(주) 대표이사		
이학노 슈퍼월드교역(주) 회장	장희용 변호사		
장덕수 (재)우민재단 이사장	전병을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진학 유진기업 사장	정승환 변호사		
최명배 (주)엑시론 사장	정용실		
허승현 PHA 사장	정인재 (주)초록숲 대표		
KDB산업은행	조명현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연구교수		
	조용상 가천대학교 교수		



# Life ON Sealy

시간이 흐를수록  
세대를 거듭할수록  
선명해지는 가치가 있다  
144년 당신을 지지해온  
셀리 포스처피딕  
Life ON Sealy

**KBS**  **교향악단**  
KBS Symphony Orchestra

**A.**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T.** 02-6099-7400  
**F.** 02-6099-7416

**f** [fb.com/kbssymphony](https://fb.com/kbssymphony)  
**📺** [kbssymphonyorchestra](https://kbssymphonyorchestra)  
**🗨️** 플러스친구 KBS교향악단 'kbssoforever'  
**▶** [youtube.com/@KBS\\_Symphony\\_Orchestra](https://youtube.com/@KBS_Symphony_Orchestra)